

## 교과서의 개발과 저작권



**김창화**  
한밭대학교 교수

###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예 관련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들은 그 안에 여러 내용, 즉 어문, 음악, 미술,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저작권자에게 독점배타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

권법」 제25조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게재를 위해 저작물을 번역 또는 편곡하거나 변경을 하는 개작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교과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책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였으나, 점차 대형 화면과 온라인에서의 수업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변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교과서에의 게재만을 저작권의 제한으로 인정하였고,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작권자들은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용이성으로 이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급증함에 따라 교과서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이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중송신은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저작물을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그 이용은 교과서를 본래의 목적, 즉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발행한 자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자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과서를 개발할 때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공정이용이라 합니다

「저작권법」은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를 공정이용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정한 경우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일부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저작권의 보호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의 발전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제한과의 조정과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특히나 다른 특허나 상표 등의 지식재산법에 비해 저작권의 제한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저작권의 자유로운 이용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헌법이 저작권자에게는 간접적인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용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의 보호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의 목적을 배움의 촉진, 공중에 대한 접근의 제공, 공유재산의 보호라는 3원칙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는 범위가 저작권자와의 이익 형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저작권법」과 우리 「저작권법」은 이러한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가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 한 가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저작물을 누구나 어떤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저작권이 이전되거나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 교과서에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기 위해, 교과서에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정하

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그 대상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을 위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를 의미하며, 대학이나 학원 등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서와 지도서를 의미하며, “교과용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게재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중에 공개된, 즉 공표된 저작물이여야지 공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용의 방법은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이고, 게재의 의미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과서에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해도 무효는 아닙니다

또한, 교육 목적상 교과서에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일 뿐,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게재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의 기준은 교과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자세히 정해져 있으며, 서책 또는 전자저작물을 따로 발행하거나 동시에 발행하는 등의 발행 형태와 발행되는 부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상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및 분배하기 위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KOLAA)가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는 저작권자들의 신탁 기관으로서 저작권자를 위한 재판상 권리까지 보유하는 등 강력한 권리를 가지며, 보상금이 분배되지 않고 남은 보상금으로 저작권 교육이나 홍보, 저작권 보호 사업 등의 저작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한 때도 저작자의 저작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한 때도 해당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작

자의 저작권은 유효하게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 예로써, A라는 사람이 동시를 창작하였고, 이를 B 출판사가 교과서에 게재한 경우라면, 그 게재에 대해 B 출판사는 허락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 동시를 이용하여 문제집을 개발하는 C 출판사는 반드시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 2021년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가 허락 없이 이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교육부가 갖는 저작권은 편집저작권이어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구성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뿐, 소재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서에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저작권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게재 시에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그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학교나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이나 시험문제로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수업 지원기관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의 방법은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이 포함되고,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개작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저작물의 이용은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보상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시험문제로 이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문제로써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른 기출문제를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참고서 등에 수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물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되어도 이는 공정한 이용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저작권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교과서를 만들고 수업을 하는 데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적절한 보상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의 균형은 앞서 말한 일반 공중의 배움의 촉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필자 소개

미국 Wisconsin 대학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하고, 현재 한밭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가르치고 있다.